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7일(현지시간) 오전 스위스 제네바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열린 'UN 지방정부와 인권 협의회'에 참석해 '인권도시 광주, 그리고 지구적 협력'을 주제로 개회연설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유엔 인권증진 협력 강화

내년 5·18 40주년 맞아 세계인권도시포럼 공동 추진
이용섭 시장, 유엔인권최고대표부서 길모어와 면담

광주시에 유엔과 함께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인권교육을 진행하고, 2020세계인권도시포럼 공동개최도 추진한다.

이용섭 시장은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 케이트 길모어 부대표와 면담을 갖고, 광주시가 2020년부터 진행하는 국제인권교육에 유엔의 교육콘텐츠와 전문강사,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제인권교육은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 정책 전문성 강화와 국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광주시와 코이카(KOICA)가 공동

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유엔은 한국사무소를 통해 광주시와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또 5·18민주화운동 40주년에 맞춰 유엔인권최고대표부와 내년 5월 세계인권도시포럼 공동개최를 추진한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길모어 부대표에 전달하고, 미셸 바첼레트 대표(전 칠레 대통령)를 포럼에 공식 초청했다.

이에 길모어 부대표는 "인권의 가치와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유엔과 광주가 성공적인 협업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포럼 공동개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지방정부연합 인권협의회의'에 참석해 "인권도시가 도시운영의 중요한 지점이 되어야 한다"며 두 가지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세계지방정부연합인권위원회(UCLG-CSDPDR) 공동의장 자격으로 회의에 초청받은 이 시장은 영어로 진행된 개회연설을 통해 "인권도시의 궁극적 목적은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인권공동체의 실현이다"며 "지금처럼 시민의 자율성과 자치가 강조되는 시대에서, 인권도시는 더욱 중요한 도시발전 비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실천과제로 "지역자원의 인권보호체제에 시민사회와 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공동의 실

천과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 국가, 지방정부가 인권을 중심으로 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며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2019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 인권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구적 차원의 인권연대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케이트 길모어 부대표는 "광주시장의 제언은 다양성과 특수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의 행복과 인권보호를 위해 우리가 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도시의 미래는 우리의 어깨에 있다. 지금의 지방정부들은 광주처럼 큰 변화를 이끌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

전남 주요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 탄력

관광공사 공모 선정...박물관·점 등 설치 확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19년 무료 와이파이 구축' 공모사업에 전남도가 선정돼 스마트관광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모든 관광지에서 무료 와이파이 설치를 목표로 2017년 관광지 66개소, 지난해에는 206개소에 대한 와이파이 설치작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총 470개소의 관광지에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관광공사 공모사업에서 확보한 국비 3억원과 지방비 11억원, KT 부담 10억원 등 총 24억원을 들여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도내 박물관, 미술관 등 역사와 문화공간에 와이파이 시설을 집중

한다는 방침이다.

또 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여객항까지 와이파이를 확대기로 했다.

공공와이파이가 도내 관광지 전체로 확대되면 관광객의 SNS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통한 실시간 홍보가 이뤄져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형석 전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통해 전남을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따뜻한 디지털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철회 촉구

이광일 도의원 "수출성장 불구, 어장개발 막혀"

전남도의회가 정부의 김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18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광일(민주당·여수1)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최근 김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김양식을 통한 귀어 진입과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원칙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전국 김 생산량은 56만여톤으로 이 가운데 46만 톤이 전남에서 생산되고 있다. 또 2015년 3억 달러 수준이던 김 수출액은 지난해 5억 달러를 넘기는 등 수출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2011년 해양수산부가 김

을 양식 전락품목으로 선정된 이후 양식어장 신규개발을 금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수산업법상 김양식어장개발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사항이지만, 사실상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내년 6월까지도 김 양식어장 개발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건 지나치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제를 완화, 김 양식을 원하는 어업인들의 바람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 군 공항 이전 일방추진, 갈등 증폭”

김성일 도의원, 합리적 정책대안 마련 촉구

광주 군 공항 이전 갈등을 증폭하는 발언과 행동을 자제하고 이전예정 후보지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남도의회 김성일(민주당·해남1)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18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전남도가 '합의'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왜곡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전남도의 선의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협력"하기로 한 것을 마치 '합의'한 것처럼 호도하

고, 민간공항 이전을 양보했으므로 군 공항 이전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공항의 이전에 합의했다"고 지역주민의 회생이 따르는 군 공항 이전과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광주·전남의 갈등만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김 위원장은 또 "이전대상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도 없이 광주시의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으로 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면 어느 지역에서 수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이전대상 지역 지원사업비 4,500억원에 완충지 매입·이주비용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주민 지원사업은 거의 없다"며 "현행법으로는 직접적인 소음피해 보상 관련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발전 전략과 주민피해 보상 대책, 소음문제 해결대책 없이 사업 추진 강행은 불가능하다"며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대안 마련부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2025년 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 청취 시, 7월3일까지 주민공람...도시계획시설 등 담겨

광주시가 2025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광주시는 19일부터 7월3일까지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이 담긴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주기로 추진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기조를 수용해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의 정비 등을 중심으로 한다.

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현장 확인으로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10여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난 4월 재정비(안)를 최종 확정했다. /황애란 기자

주요 내용으로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의 용도지역 관리원칙인 '외곽 확산 제한 및 도심재생 유도'의 관리방향을 반영해 신시가지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토지이용과 용도지역이 불부합한 지역과 시가지 내 소규모 용지를 주변지역에 맞도록 하는 등 용도지역을 현실화했다.

또 도로 등으로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를 해제하고 상위계획 등을 반영해 영산강·황룡강변의 특화경관지구 지정 및 도로와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인몰제에 대비해 집행계획이 없는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자연취락지구 신설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의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황애란 기자

수영대회 홍보 중국 낙양시 방문
광주시의회 위원장단, 교류 논의

광주시의회는 18일부터 4일간 시의회의 후호 도시인 중국 허남성 낙양시를 방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와 함께 우호 교류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방문은 낙양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다.

방문단은 장재성 부의장을 단장으로 이경호, 김익주, 박미정, 황현택, 김학실, 송형일 의원 등 상임·예결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우중양 낙양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양징린 낙양시 상무위원회 비서실장, 양호취 낙양시 문화예술연합회 주석 등을 만나 두 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와 낙양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2013년 우호 협정을 체결한 이후 매년 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다. /황애란 기자

신뢰와 고객감동 서비스로 국내·외 엔지니어링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 태양광발전사업(RPS)인허가, 시공, 토탈 컨설팅
- 태양광 조달우수업체 및 MAS(다수공급자)등록업체
- 공동주택(APT)종합감리업, 설계업 1종
- ESS(에너지저장장치) ■ 지자체 융·복합지원사업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 건물지원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주요사업

-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 ◎ 조달우수업체(태양광발전시스템)
- ◎ 전기·소방·기계설비공사업
- ◎ 전기 종합감리업 및 설계업 1종
- ◎ 정보통신 공사업
- ◎ 난방시공업체(제1종)
-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 조달청 MAS(다수공급자)등록업체
- ◎ 공동주택(아파트)설계, 감리업
- ◎ 태양광 발전 설계·감리·시공업
- ◎ 태양광, 태양열, 제조업체(공장)
- ◎ 한전 무정전협력업체(배전간기)
- ◎ 에너지전문기업(ESCO)2종



[주] 세진엔지니어링
SEJIN ENGINEERING.CO.,LTD
HTTP://SEJINENG.CO.KR

본사 : 전남 영암군 덕진면 향월유수동길 101-8
공장 :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50-1(유촌동)
TEL : 062-384-6333
FAX : 062-384-6334
H·P : 010-3735-7113
대표전화 : 1588-4556

대표이사 박찬갑

